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담당자 : 전재일 주무관

연락처 : 055-211-4084

경남도, 진해신항 서컨배후단지 내 첨단물류기업 투자협약 체결

- 두바이 물류기업 등 2개 사, 1,572억 투자, 275명 신규고용 창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신항, 동북아 물류 허브로 조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글로벌 물류기업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와 진해신항 서컨 배후단지(1단계)에 스마트물류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도지사,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노승현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대표이사, 김도영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에서 물류사업을 운영 중인 (주)엘엑스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와 국내주요 화주(貨主)*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업이다.

* 화주: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해상운송 서비스의 수요자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진해신항 서컨 배후단지(1단계) 12만 5,720㎡ 부지에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총 188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다. 스마트물류센터는 반제품(半製品)*을 직접 가공, 조립해 수출하는 고부가가치의 물류센터로 도약할 계획이다.

* 반제품: 여러 공정을 거친 중간생상품, 완제품의 전 단계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는 UAE 두바이에 위치한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DP월드그룹에서 설립한 기업으로, 진해신항 서컨 배후단지(1단계) 7만 4,568㎡ 부지에 약 572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87명을 신규 고용

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유럽,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모델 확보와 농식품, 자동차, 산업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스마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들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투자협약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도는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진해신항 서컨 배후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과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진해신항이 동북아 물류의 관문이자 글로벌 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유치단 전재일 주무관(055-211-40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